

'407억 vs 4억' 로또 1등 당첨금 천차만별



역대 온라인복권(로또) 최대 1등 당첨금이 최초의 100배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국내에 로또가 처음 출시된 2002년 이래 최근까지 최대 1등 당첨금은 2003년 4월 12일 추첨에서 나온 407억2000만원이다. 당시 6개의 로또 숫자를 모두 맞힌 주인공은 1명에 불과했는데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은 1주일 전 금액이 이월되는 바람에 당첨금이 눈덩이처럼 커졌다. 1등 당첨금을 1인당이 아닌 전체로 따질 경우 2003년 2월 8일 추첨에서 나온 835억9000만원이 최대 금액으로, 13명이 이를 나눠 가졌다. 역대 최소 1등 당첨금은 2013년 5월 18일의 4억 6000만원이다. 당시 로또 숫자 6개를 모두 맞힌 사

찾아가지 않는 당첨금액
해마다 300억~500억원

람은 30명으로, 역대 최대 당첨자 기록이기도 하다. 통상 10명 안팎인 당첨자 수가 30명까지 불어난 것에 대해 복권위 측은 당첨번호에 '행운의 7'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으로 해석했다. 당시의 로또 당첨번호는 '8, 17, 20, 27, 37, 43'으로 '7'로 끝나는 숫자가 3개나 포함돼 있다. 부산의 한 판매점에서는 10명의 1등이 배출돼 인터넷상에서는 '당첨번호 조작론'이 불거지기도 했다.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복권위 관계자는 "한 사람이 같은 번호를 적어서 중복 당첨됐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 사람은 1등 당첨금인 40억 6000만원을 탄 것이다. 한편, 찾아가지 않는 당첨금은 해마다 총 300억~500억원에 달한다. 등수별로 보면 당첨금이 5000원인 5등 당첨금의 미수령액이 가장 많다. 로또 당첨금의 소멸시효는 1년이다. <연합뉴스>



로또가 출시된지 13년된 가운데 최근까지 온라인복권(로또) 최대 1등 당첨금이 최초의 100배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지역 복권 판매점. <광주일보 자료사진>

■ 주간 증시 포커스

그리스 구제금융 합의 대외변수 불확실성 해소 국내 증시 훈풍 기대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이 결정되고 한국은행 금융 통화위원회가 4개월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등 국내주식시장에 상승 모멘텀은 부족했지만 연기금의 대량매수에 의해 1960선을 탈환하며 설연휴에 들어갔다. 연휴 기간에 글로벌 주식시장의 최대 이슈는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 결과였다. 다행히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재무장관들은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을 4개월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그리스는 오는 6월 말까지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펀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새로운 협상을 체결할 때까지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게 됐다. 이 소식에 인하여 20일 미국증시에서 다우지수와 S&P500 지수는 역대 최고치 기록했다. 2월 들어 글로벌 주식시장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유동성 확대 기대감과 함께 선진국 증시가 양호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고, 유가 급락세로 약세를 보였던 신흥국 증시도 반등세를 나타내는 등 그동안 지루한 박스피를 보였던 국내증시에 훈풍이 불어오고 있다. 기술적 측면을 살펴보면 코스피지수는 60일 이동평균선에 안착한 이후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120일 이동평균선(1964.61포인트)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9월 코스피가 60일 이동평균선을 하향 이탈한 이후 유로존 경기침체, 유가 급락 등 대외 악재 속에서 60일 이동평균선 회복에 빈번히 실패했지만, 유로존의 양적완화 프로그램 및 주요 국가들의 통화완화 정책 시행에 힘입어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을 갖추며 상승을 위한 에너지 축적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외국인과 연기금이 동반 매수에 나서면서 국내 증시의 하방경직성을 강화시켜주고 있다. 연초 이후 매도세로 일관하던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패턴이 2월 들어 순매수로 전환하였고, 연기금 역시 1월 중반부터 1.3조원 이상을 순매수하면서 국내 증시의 수급상황이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3월부터 본격적으로 ECB(유럽중앙은행) 양적완화가 시행되고 유로존 경제지표 개선이 현실화 될 수 있어 국내증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 투자전략으로는 대외변수의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되면서 심리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지만 여전히 글로벌 투자자금이 국내주식시장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상승은 제한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유가 등 주식시장에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는 변수로 인해 이익실현을 병행하는 투자전략이 필요해졌다.



김경신 <NH투자증권 수완지점 부장>

“카드 가족에 빌려줘도 부정사용”

금감원, 가족카드 발급 권유

신용카드는 가족끼리 빌려줘도 부정사용에 해당하므로 만약을 대비한다면 가족카드를 발급받는 것이 좋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가족 신용 카드 관련 소비자 정보를 지난 16일 제시했다. 금감원은 가족이라 하더라도 신용카드 대여·양도 시에는 부정사용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신용카드는 제3자에게 대여·양도가 불가한 품목이므로 대여·양도 중에 분실 등 문제가 발생하면 카드사가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법적인 문제점을 피하려면 가족카드를

발급하면 된다. 가족카드는 본인 회원이 그 가족 회원 카드 대금 지급 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가족에게도 회원자격을 부여하고 각각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가족의 범위에서 가족으로 인정되고 본인회원이 지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본인회원은 본인 및 가족회원의 대금 지급 책임을 부담하고 가족회원은 가족카드의 이용·관리만 책임진다. 본인회원과 가족회원은 자신의 카드를 제3자에게 제공해선 안 된다. 본인회원은 가족회원의 동의 없이 가족회원을 해지할 수 있고 이혼이나 사망 등 가족 관계의 변경이 있을 때 이런 사실을 카드사에 즉시 통지해야 한다.

“금융사기 막자”... 은행들 텔레뱅킹 한도 줄인다

농협은행·축협 300만원 외환은행 1천만원으로 축소

빈번한 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은행들이 텔레뱅킹 한도를 축소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수년새 인터넷뱅킹이 급속히 보급되면서 전화를 이용해 계좌이체 등 금융거래를 하는 텔레뱅킹 이용이 줄고 있으나, 여전히 가입자가 4000여만명에 이르고 실제적인 이용자도 1200여만명이나 된다. 그러나

보안이 취약해 대출사기, 보이스포싱 등에 노출되는 사고가 잦아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실제로 지난해 말에는 농협중앙회 산하 지역농협에서 예금주 모르게 텔레뱅킹으로 1억2000만원이 인출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은행들은 이 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텔레뱅킹 이체한도를 축소하는 등 각종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농협은행과 축협은 지난 9일부터 보안카드를 이용해 텔레뱅킹을 하는 고객의 1회 이체한도를 기존 500만~10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했다. 취약시간대인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의 이체한도를 아예 100만원으로 줄였다. 휴대전화 문자인증 서비스는 현행 '건당 30만원 이상, 하루 누적 300만원 이상'에서 '건당 30만원 이상, 하루 누적 100만원 이상'으로 강화해 인증 대상을 넓혔다. 외환은행은 다음 달 31일부터 보안카드를 이용해 텔레뱅킹을 하는 고객의 1회 이체한도를 1천만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고객이 지정하는 한도 내에서는 금액에 상관없이 잔액이체할 수 있었다. 나아가 텔레뱅킹을 하려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등으로 추가 인증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다음 달부터 모든 통장에 대해 '1일 500만원, 1회 500만원'으로 텔레뱅킹 이체한도를 줄이기로 했다. 특히 밤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의 이체한도가 100만원으로 줄어든다. 신한은행은 지금껏 '하루 5000만원, 1회 1000만원'이던 텔레뱅킹 이체한도를 다음 달부터는 '하루 500만원, 1회 500만원'으로 줄인다. 일정액 이상 이체할 때는 추가 인증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텔레뱅킹 이체 한도 축소를 금융사기 피해액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인증 강화 등을 통해 금융사기 피해건수 자체를 줄이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신축 원룸 매매

전대정문 2분! (신축 4층건물)
룸12개, 올 대리석시공, 신축 (1층점포 1개, 2~3층 룸 10개, 4층 주택 1개, 옥탑)
월수익 500만, 매매가 6억 7천

추천물건
목포 용해동 전원주택 매매 용해동 교회앞 금호아파트 사이 대지310평 전주택 2채, 무화과 나무 있음
매매가 3억 (용 1억 2천)

① 전대정문 1분코너 룸21개 룸20개 (1층 상가 2개) 월 700만, 매매가 8억	④ 전대상대 2분 11개 4층 주택 월수익 400만, 매매가 6억5천
② 용봉동 용봉지구 미래도 A 코너 룸 19개 (1층상가, 4층 주택) 엘리베이터 완비, 대지 105평, 월수익 900만, 매매가 11억	⑤ 동신대 후문 2분 룸 18개 (1층 상가) 주인세대 4층, 매매가 10억
③ 동구 대의동 고시원 룸 72개 월수익 1천2백, 매매가 21억	⑥ 중흥동 원룸 룸12개 상가1개, 주택1개 월세 385만, 매매가 10억

한신공인중개사 062)527-7600

상가건물매매 <7층 사우나>

북구 우산동 7층건물 <올수리>
월수익 900만
(주인 직접 운영시 월 1,800만 수익 발생)
매매가 13억 (보 1억, 용 6억)

추천물건
염주동 (화정동) 상가건물 1~2층 상가 3층주택 삼거리 코너앞
매매가 7억 3천 (보 1억 4천)

① 나주시 상영동 상가건물 2층 영강초교앞 1층 6칸, 2층 4칸 월 수익200만, 매가 2억8천	③ 목포 용해동 전원주택 매매 <빌라부지> 도로2차선옆 바닷가 5분 무화과 나무 식재됨 대지 310평, 주택 2채, 50평 매가 3억2천
② 서구 상무지구 정연 3층 상가 30평 (보 1천, 월수익 70만) 매매가 1억2천	④ 수원지구 모이엘가람 3층 85평 보 2천, 월 200만, 용 2억5천 매가 3억5천
⑤ 수원지구 3층 롯데마트 옆 4층중 3층 62평 월수익 150만, 매매가 2억5천	⑥ 서구 상무지구 수림6층 15평 보 3백, 월 32만, 매가 4천8백
⑦ 서구 상무지구 5층건물 월세1천8백, 매매가 200억	

(주)대신 010-6670-9800

상무지구 사무실 임대 (5층 학원)

평수 100평 (전용 80평)
이면도로코너 학원리모델링 합 주차 3대 확보
중심 상무지구에서 저렴함

나주 상가 2층건물 매매

① 영신 중, 고교 앞, 영강 초교 앞
② 대덕 APT 유동인구 많음
③ 대지 210평 (1층 6칸)
④ 건물(2층2칸), 학원적합
월세 200만 (보 1천, 용 1억)

매매가 2억 8천

010-6670-9800

(주)대신경매

입찰부터 매매 임대까지 원스톱지원
"건축 리모델링 개발 무료상담해드림"

근린시설 / 근린주택

- 남구 백운동 (토 315㎡, 건물 636㎡) 감평가 5억2천, 최저가 3억5천
- 남구 지석동 (토 105㎡, 건물 88㎡) 감평가 8천1백, 최저가 5천6백
- 북구 오룡동 (토 1,199㎡, 건물 3,987㎡) 감평가 35억6천, 최저가 24억
- 동구 계림동 (토 445㎡, 건물 1,558㎡) 감평가 10억8천, 최저가 4억8천
- 북구 일곡동 (토 9,600㎡, 건물 250㎡) 감평가 41억, 최저가 41억

근린 상가

- 서구 치평동 (토 37㎡, 건물 165㎡) 감평가 3억6천, 최저가 1억
- 광산 도산동 (토 91㎡, 건물 128㎡) 감평가 1억2천, 최저가 5천5백
- 북구 중흥동 (토 13㎡, 건물 32㎡) 감평가 1억9천, 최저가 8천5백
- 서구 금호동 (토 140㎡, 건물 295㎡) 감평가 6억5천5백, 최저가 4억5천8백
- 광산 월계동 감평가 2억2천, 최저가 7천9백
- 서구 풍암동 감평가 8억7천, 최저가 4억8천

주유소

- 서구 마북동 (토 1,132㎡, 건물 278㎡) 감평가 9억9천, 최저가 6억9천7백
- 남구 입촌동 감평가 7억, 최저가 4억9천
- 광산구 북흥 감평가 8억8천, 최저가 8억8천

토 지

- 서구 매월동 (토 1,960㎡) 감평가 3억5천, 최저가 2억4천7백
- 남구 봉선동 (토 417㎡) 감평가 1억6천8백, 최저가 9천4백

010-6670-9800 / 062)382-5500

경매학원 상무점

이제 경매는 대중화시대

경매학원

↓

실전스터디반
(평생 회원반, 소수 정원제)
(경매 입찰부터 매매, 임대)

↓

개발 건축 리모델링까지 원스톱

↓

수요일 오전10시~12시 (저녁7시~9시)
금요일 오전10시~오후 7시 (기본반)
토요일 오전10시~오후12시 (고급, 실전)

① 화, 수요일 오전10시~12시 (실전위주) 오후7시~9시

010-6832-9700
062-382-5500